

(앞)

요즘 여자들, 그때보단 살기 편하대구요??

오늘날 여성들은 한 인간으로 여겨지기보다 '여자'로, 성적대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성의 몸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의 위협에 떨어야 하고, 몸과 외모가 상품의 하나로 여겨지는 이 사회는 여성의 삶을 크게 제약합니다. 이윤만을 위한 경쟁질서 속에서 가장 먼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면서도, 가사일과 육아의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는 편견 때문에 슈퍼우먼이기를 강요받는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해 볼 때에도,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아직도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더 이상 '여자 팔자가 다 그렇지'라고 체념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와 나의 어머니, 자매들과 함께 여성의 억압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요구를 외쳐낸다면, 변화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96년전 미국의 여성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2004년 3·8여성의 날은 우리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 가기 위한 힘찬 연대의 날이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만 생각  
3/8 유쾌나 \_\_\_\_\_,

(뒤)

**여성의 몸의 권리를 여성에게!!**

인간이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는 것은 인권의 기초입니다. 이 사회에서 여성의 몸이 더 이상 대상화되지 않을 때에야, 우리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비하하는 말들과, 시선과, 폭력과, 차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여성이 여성의 몸에 관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우리가 요구해야 할 여성권입니다!

**여성에게 평등한 일자리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서 차별받고 구조조정에서는 1순위가 되는 현실에 이제 반기를 듭시다. 여대생 실업 해결, 여성의 비정규직화 반대, 여성의 빈곤문제 해결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여성의 억압을 깨뜨리기 위한 구호들입니다. 또, 평등은 동등이 아닙니다. 여성은 여성으로서 인정받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이 한 사람의 당연한 노동자로 서는 그날까지, 여성에게 평등한 일자리를!!

**여성에게 전가되는 이중노동부담반대!!**

삶이 어려워지면서 일용직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여성에게 직장일과 가사를 병행하도록 하는 이중의 노동부담을 감내하게 합니다. 가사노동은 사회 전체의 생산에 꼭 필요한 재생산 노동입니다. 더 이상 여성과 가족이 이중노동부담의 짐을 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재생산 노동의 사회적 해결을 요구합시다!

✓ 2/2 대문 (가부장적 억압 해체)

✓ 2경의, 일거